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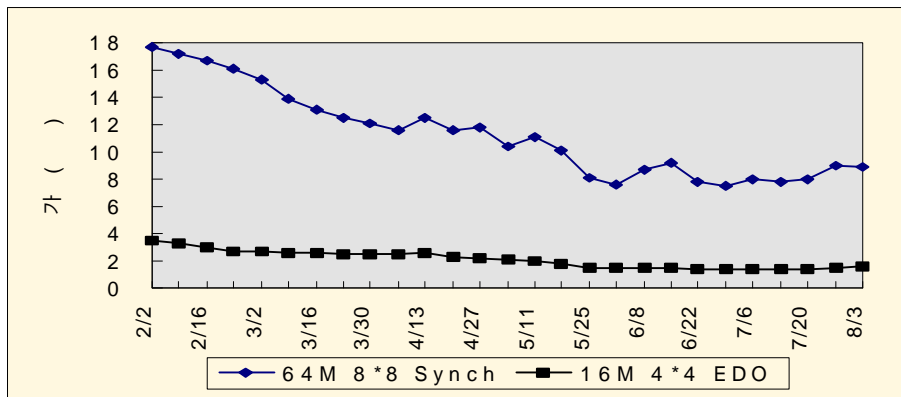
3. 반도체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 전망

- (동향) 8월 들어 D램 현물가격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를 시현. 이는 한·일 업체들의 감산과 수요측의 가수요 때문
- (시장여건의 변화) TI社와 지멘스社가 D램사업 철수 및 축소 대열에 합류하고 주력 수요가 64M로 급속히 이전해 가고 있음
- (전망) 현재의 가격 상승이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내년 2/4분기 경에는 회복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물시장에서의 가격 동향

- 최근 D램 현물시장(북미시장 기준) 가격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를 시현
- 6월말까지 D램 현물가격은 하락을 거듭하였으나 7월들어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니 8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세로 돌아섬

< D램 대표제품의 현물가격 추이(북미시장 기준) >



자료: AIC(American IC Exchange)

- 한국업체들이 6월중 1주일 이상씩 공장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일본업체들도 감산에 동참함
- 하지만 감산만으로 수급의 균형을 이루기에는 공급능력의 과잉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산 자체가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격이 안정을 이루었다고 판단한 유통업체들과 수요업체들이 그동안 축소하였던 보유재고를 적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재고확보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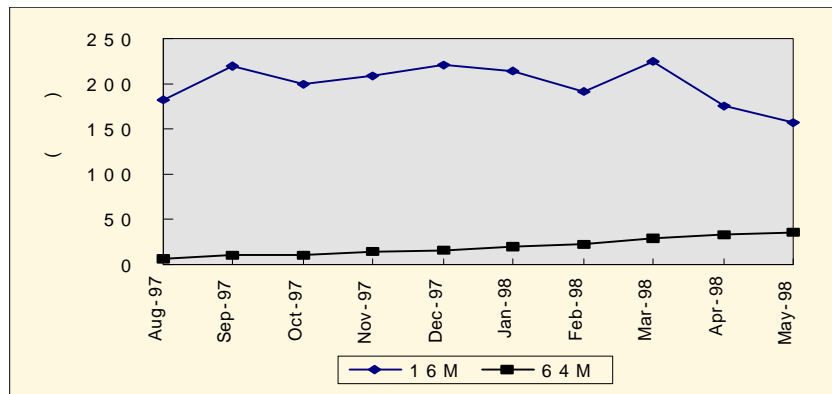
가수요가 발생함

- 대개 유통과정상에 존재하는 적정 재고량은 2주치 분량 정도임
- 하지만 가격하락이 지속되어온 최근까지 유통업체 및 수요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1주일치 미만인 것으로 파악됨
- 최근 가격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유통재고를 늘리기 위해 가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시장 여건의 개선

- 주요 D램업체들의 D램 사업 축소와 그로부터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음
 - 지난 7월 D램에서 세계 7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TI社가 D램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자신의 설비를 마이크론社에 매각하였음
 - 유럽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지멘스社도 가동을 시작한지 15개월밖에 안된 영국의 16M 공장을 지난 8월 3일 폐쇄하기로 결정함
- 주력 수요가 16M에서 64M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음
 - 경기의 국면 전환은 주력 수요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64M시장이 본격 형성될 때 가능함
 - 128M D램이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고급수요를 상당정도 충족시킴으로써 일반 PC에서의 64M D램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윈도우 98'의 출시로 PC의 대당 메모리 용량이 크게 증가함
 - 지난 3월 이후 16M 출하량은 감소하는 반면 64M 출하량은 급증함

< 16M와 64M의 출하량 추이 >



자료: WSTS

- 64M 제품중 인텔의 PC-100 사양을 충족시키는 100Mhz 이상의 고급 싱크로너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고급품으로의 수요 이전이 급진전되고 있음

□ 향후 경기 전망

- 현재의 가격 상승이 곧바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최근의 가격상승이 적정재고 확보를 위한 가수요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적정 재고가 확보되면 수요는 다시 위축될 것이고 가격상승은 멈출 것임
 - 그동안의 지속적인 설비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상수요량에 비해 공급능력이 16M는 6%, 64M는 10% 정도 과잉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지금 당장 수급 균형이 이루어져 회복기로 국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하지만 D램 업체들의 설비조정과 수요의 64M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회복기로의 국면 전환이 도래할 것임
 - 현재 상당한 설비과잉이 존재한다는 점, 아시아 경제위기와 저가 PC 보급으로 메모리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 등 때문에 경기 회복에 비관적인 견해가 팽배함
 - 그러나 설비의 과잉 여부는 현재의 수요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앞으로의 잠재수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PC 수요 전체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D램에 대한 수요의 세대교체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가 PC에서의 비용 저하의 대상은 CPU나 주변기기이지 메모리는 아니라는 점 등 때문에 위의 견해는 근거가 희박함
 - 유통 및 수요업체들이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없다'고 예상하고 재고 확보에 나선 것 자체가 회복기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으로 보여주는 것임
 - 신제품 양산 이후 1년 정도 이후에 경기의 국면 전환이 도래했던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지난 2/4분기 128M가 양산된 후 1년 뒤인 내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김 창 욱 cwkim@hri.co.kr ☎724-4044)